

대표 생태수도 순천시 1천만 관광객 모은다

빠어난 자연환경 등 세계적 생태도시로 발돋움



순천시는 올해를 순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1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순천만 국가정원에 300만명이 찾는 등 현재 44만명이 순천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5대연안습지인 순천만을 보전해 한 해 500만 이상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생태, 힐링의 여행지가 됐다.

순천은 순천만 등 빠어난 자연환경과 선암사를 비롯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청정한 땅에서 나는 다양한 먹거리는 순천을 찾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순천은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발돋움하

고 있다.

순천만은 1990년대만 해도 순천을 가로지르는 동천 하구와 갈대밭, 갯벌 생물들이 살던 터전이었다.

그 후 순천만 하구는 버려진 채 방치됐고 1993년 민간업체의 골재 채취 사업이 알려지면서 순천만은 주목을 받았다.

순천만의 갈대숲을 보전하려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결국 사업이 무산됐고 1996년 본격적인 생태조사가 시작했다. 조사 결과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가 인정돼 골재채취 사업은 취소됐고 2003년 해양수산부 갯벌 습지 보호구역 제3호로 지정됐다.

2006년에는 국내 연안습지로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습지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해 국내외에 알려

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천연기념물 제288호인 흑두루미가 1996년 처음 발견됐으며 이후 개체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 해만 2천176마리가 찾았다.

순천만이 생태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순천시는 습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코벨트로 정원박람회 개최하고 순천만정원을 조성했다.

그 후 순천만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명실상부 순천은 자연과 생태, 정원의 도시로 자리잡았다.

순천 선암사는 지난해 6월 산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순교 등 함께 주변 경관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사찰이다.

선암사와 함께 16국사를 비롯해 고승대덕을 배출한 승보종찰 송광사는 한국의 삼보사찰로 불린다.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낙안읍성은 마을 전체가 조선시대의 모습을 잘 간직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순천은 도시라기 보다는 자연 그 자체이다.

순천만습지를 중심으로 순천시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최종 지정 승인됐다. 국내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됐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폭염대비 가축 피해 예방에 총력

보성군이 축산 농가 폭염 피해 예방에 본격 나섰다. 지난해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성군은 3억 6천여만 원의 사

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폭염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예방 시설·장비인 풀라패드, 대형환풍기, 대형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목성지구 '아파트 건립 기공식' 가져

광양시는 최근 광양읍 목성도시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건립현장에서 '부영주택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정현복 광양시장, 전라남도 도의장,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신명호 ㈜부영주택 회장 등 부영관계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새로

건립될 아파트에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목성지구 아파트 건립'은 지난 목성도시개발사업이 수립된 이래 10여년 만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띄게 됐다.

목성도시개발사업지구내 건립할 아

파트는 총 6,450세대로 임대 2,181세대, 분양 4,269세대 건립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육룡방면 남해고속도로 인접부지 A-1블록 724세대, A-2블록 766세대 총 1,490세대를 먼저 착공해 임대 2개 단지를 2021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야아파트도 단계별로 준공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구례군, 어르신 결핵검진 강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결핵 전수검진' 실시



구례군은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결핵 전수검진을 시행한다.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

하여 10일부터 12월까지 산동면, 15일부터 16일까지 마산면을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 엑스선 장비가 탑재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어도 평소에는 발병하지 않으나,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결핵 발병률이 높다고 한다.

이번 노인 결핵 전수검진에선 활동성 폐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결핵 감염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추후검진을 거쳐 보건 의료원에서 등록한 후 완치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주이상 기침, 가래, 피로감,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특히 마을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위해 이번 검진에 동참하기를 당부하고 결핵 없는 안전한 구례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여주시, 광주세계수영대회 오픈워터경기 준비 '총력'

시설·자원봉사·교통·안전 등 막바지 준비 '분주'

오는 13일부터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광주세계수영대회 오픈워터경기가 열린다.

대회조직위원장이 이윤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7일 오픈워터 경기장을 찾아 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여수시도 이에 발맞춰 이번 대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시가지와 경기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적조와 해양오염 방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안전, 경기운영, 식음료, 미디어,

수송, 연출시상 등을 도울 자원봉사자 188명도 일제감치 모집했다.

육교현수막, 배너기, 리플릿, SNS, 언론보도, 방송 등을 통한 대회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달 7일부터는 엑스포해양공원 국제관 D동에 상황실을 꾸리고 각종 대책 수립과 상황유지에 힘쓰고 있고, 8일에는 부시장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회 기간에는 경기장 주변 교통 소통 대책을 추진하고, 음식점 바가

지요금 근절과 식중독 예방에도 힘쓴다. 특히, 시는 이번 대회를 여수에 세계에 알리는 홍보의 장이자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대회관계자에게는 무료 시티투어를 제공한다. 탑승객은 엑스포역을 출발해 오동도, 이순신광장, 웅천천수공원, 수산시장을 경유하며 여수의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둘러본다. 조직위원회에서 발급한 카드만 있으면 시내버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고흥군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선정

해창만 유희지에 어린이 테마놀이터 조성



고흥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다른 사업에 비해 모든 지자체가 선호해 경쟁률이 높은 사업이다.

고흥군은 '꼬맹이 테마놀이터 조성'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이번 공모 사업에 응모하였는데, 해창만 유희지

약 10,000m2 면적에 ▲이들이 좋아하는 VR 및 드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자연 친화적인 실외 놀이터 ▲고흥군 출신의 동요작사가 복일신 선생을

테마로 한 세발자전거 트랙 ▲해창만 갈대밭을 걷고 즐길 수 있는 수변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흥-여수연륙-연도교 개통에 따른 관광 유입 전라 일환으로 구성된 사업이다"며 "인근의 다양한 체험 시설과 연계하여 팔영대교부터 나로 우주센터까지 연계하는 어린이 체험관광 코스의 완성을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로서 새로운 관광 루트를 형성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곡성군, 고령친화공간

정비 공모사업 선정

곡성군은 고달면 백곡마을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고령친화공간 정비사업 분야에 최종 선정 됐다라고 밝혔다.

고령친화공간 정비사업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백곡마을 주민들은 사업의 규모를 떠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선정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백곡마을은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마을만들기사업 자율개발사업(5억)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이번 고령친화공간 조성사업을 안전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의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생활 기반을 조성해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동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